

NEWS LETTER



KANGWON NATIONAL UNIVERSITY

지역교육협력학과

DEPARTMENT OF REGIONAL EDUCATION COOPERATION



교수논단

<나 홀로 볼링>과 지역교육협력 / 박주병



[특집 1탄] 강원도 행복교육지구사업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함께하는 지역교육협력 / 윤형순



알쓸교원

알아두면 쓸데있는 교육 원리 이야기 / 공평성



마을 교육 활동가를 만나다

안승문(울산교육연수원장) / 이형진(부산시교육청 장학사)



행사 진행

2021년 국립대학육성사업 SuperVision for Gangwon 성과평가회



교육연구소 알림

여름방학 2021 Teach for Gangwon 시작

<http://keri.kangwon.ac.kr/>



교수논단

<나 홀로 볼링>과 지역교육협력

박주병 (강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1966년 발표된 콜먼 보고서, 즉 존스 홉킨스 대학의 콜먼(James S. Coleman, 1926-1995) 교수가 낸 "Equality of Educational Opportunity"는 학교효과와 학업성취간의 인과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시작된 유명한 연구이다. 4천 개 학교, 6만 명의 교사, 60만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 연구의 결과는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 연구에 의하면, "학생의 성취는 학교의 프로그램보다는 학생이 속한 배경과 같이 공부하고 있는 다른 학생에 큰 영향을 받는다." 의심치 않았던 좋은 학교의 효과, 그리고 학교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교육여건을 개선하면 학생들의 학업성취를 높일 수 있다는 정책적 기대가 흔들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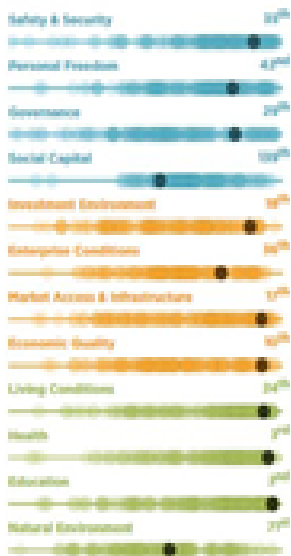
앞의 보고서보다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콜먼의 후속 연구(1985, "Achievement growth in public and catholic schools")가 있었다. 교육여건이나 가정배경이 공립학교보다 나을 것 없었던 가톨릭계 학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도탈락이 높지 않고 학생의 성적도 좋았다. 이 학교들은 신앙을 구심점으로 삼아 학생들을 자기 아이처럼 챙겨주는 "공동체의식"이 있었고 더 열심히 학업과 숙제를 하도록 격려했기 때문이다. 그는 이것을 "가톨릭 학교 효과"(Catholic Schools effect)라고 부른다.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자본(사회자본, Social Capital)은 단지 학교생활과 학업성취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글의 제목에 앞세운 "나 홀로 볼링"(Bowling Alone, 2000, 정승현 역, 2009)은 퍼트남(Robert, D. Putnam)의 책 제목이다. 제목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이 책은 공동체의식과 사회적 관계망이 미국에서 어떻게 사라져가는지를 볼링클럽 가입자 수 감소 수치로 보여주면서 시작한다. 여유시간도 늘고 주머니사정도 좋아졌고, 그래서 볼링 치는 사람은 늘었는데, "같이 볼링 치는" 사람들의 수는 오히려 줄고 있는 것이다. "나 홀로 볼링"은 사회적 유대의 해체를 보여주는 상징일 뿐이다. 퍼트남은 이 책의 II부에서 1828년 이후 투표 참여율, 시민들의 선거운동 참여비율과 같은 정치적 참여에서부터 전국규모 단체들의 평균회원등록비율, 1936년 이후 교회 신도수, 노동조합 가입률, 집에서 손님이나 친구를 접대한 평균횟수, 가족과의 저녁횟수, 개인들의 총기부금 액수, 미국의 범죄율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사회적 참여의 수준이 하락하고 있고, 이 모든 요소들을 사회적 자본이라는 개념 아래 하나로 연결하여 설명하고 있다.



Ranks 28th on the Legatum Prosperity Index™



OVERALL PROSPERITY

South Korea is 28th in the overall Prosperity Index rankings. Since 2010, South Korea has moved down the rankings table by 1 place.

PILLAR RANKINGS

South Korea performs most strongly in Education and Health but is weakest in Social Capital. The biggest improvement compared to a decade ago came in Market Access & Infrastruc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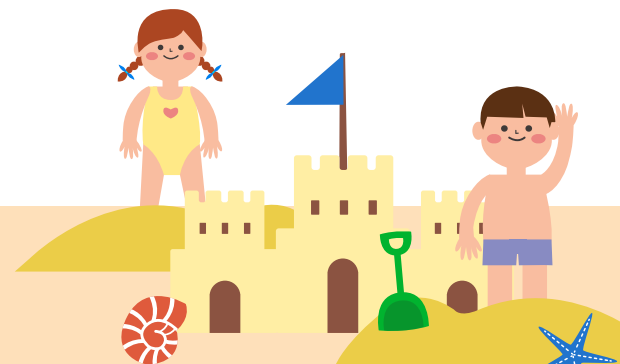
Visit our [Rankings](#) table to see how South Korea compares to other countries.

한국의 사회적 자본은 어떤 수준인가? 매년 전 세계 167개국의 경제성장, 교육수준, 건강과 보건, 개인적 복지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국가별 번영 지표(prosperity index)를 발표하는 레가툼 연구소(Legatum institute)의 평가에서 2020년 한국의 사회적 자본 순위는 전 세계 139위이다.

교육은 전 세계에서 싱가포르 다음으로 2위이며 건강도 3위권에 랭크되어 있는 종합평가 28위의 상위권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https://www.prosperity.com/rankings>). 예전에는 버스 정류장에 갑자기 내린 소나기를 맞고 서 있으면 모르는 사람이라도 우산을 같이 썼다. 지갑이 떨어져 있으면 흔쾌히 주인을 찾아 주라고 배웠고, 배가 고프면 이웃집에 가서라도 밥 한끼 찜은 같이 먹을 수 있었다. 그러나 요즘 시골 인심이란 것도 머나먼 기억이 되어버렸고, 공동체의식을 강조하면 시대착오적인 느낌을 풍기는 것이 사실이다.

"상호 신뢰, 사회적 연계망, 호혜성의 규범, 협력적 네트워크"를 통해 발생하는 사회적 자본은 1916년 하니판(Lyda, J. Hanifan)에서 시작되어, 위에서 언급한 콜먼과 퍼트넘이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주요 개념이다. 사회적 자본은 왜 중요한가? 퍼트넘의 책 Ⅲ부는 사회적 자본의 기능을 다루고 있고, 가장 먼저 교육과 어린이의 발달에 미치는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을 언급한다(17장). 그는 어린이의 행복지수, 학업성적, 어린이의 TV 시청 시간과 사회적 자본 간의 관계 등을 도표로 제시하면서, 학업성적이 뛰어난 많은 학교들에게서 경제적 자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회적 자본이며, 역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아이들에게 더 나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것도 사회적 자본임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교육협력은 학교라는 테두리 안에서 벌어지던 배움과 가르침을 학교 바깥으로 확장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배움을 좀 더 공적인 성격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말하며, 이를 통해서 아이가 가져야 할 사회적 자본에 더 주목하도록 만드는 노력이다. 퍼트넘의 말대로, 앞으로의 교육은 "'의회의 법안은 어떻게 법률이 되는가'를 알아보는 교육에 그치지 않고 '나는 내가 사는 지역 공동체의 공적 생활에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가?' 묻고 그 방안을 찾는 교육"(p.675)이어야 한다. 배움의 주제와 방식, 그리고 결과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에게 참여(영위, engagement)의 체험, 즉 단지 공식적인 행사에 이름을 걸거나 얼굴을 비추는 관여(participation)가 아니라, 내가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의 공적인 존재로 인정받고 공적인 책임을 느끼는 가운데 배움을 요청하는 체험을 할 때, 학생은 배우는 자로서 agency(행위자성, OECD 2030)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이 함께 하는 지역교육협력사업 강원도 행복교육지구사업

강원도교육청 (윤형순 장학사)

◆ 행복교육지구사업이란?

행복교육지구는 강원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협약을 통해 지역 여건을 반영한 특색 있는 공교육 혁신과 마을과 함께하는 학교문화 조성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강원교육을 실현하고자 교육감이 지정한 시·군을 의미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은 협약에 의해 교육청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공동 분담하는 협력사업입니다.

행복교육지구사업은 교육청, 시군청, 지역사회, 학교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으로 아이들의 온전한 성장을 통합 지원하며 행복한 시민으로 키워내는 마을교육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강원도교육청에서는 공공성, 전문성, 지역성, 교육주체지향성, 혁신지향성, 지속가능성을 6가지 강원도행복교육지구의 철학적 핵심가치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5년 ‘강원도 행복교육지구 기본계획’ 첫 수립 이후 2016년 태백, 화천 두 지구의 행복교육지구사업 운영을 시작으로, 2018년 원주, 영월, 인제, 정선, 철원지구, 2019년 삼척, 속초, 양구, 평창, 홍천지구, 2021년에는 강릉, 고성, 양양, 동해, 춘천, 횡성까지 현재 18개 지구가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강원도 내 전 지구가 행복교육지구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Q. 각 시·도교육청별로 조금씩 다른 이름으로 시행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전국적으로는 서울형혁신교육지구, 부산 다행복교육지구, 경북 및 대구는 미래교육지구, 인천 교육혁신지구, 광주 마을교육공동체, 대전 행복이음혁신교육지구, 울산 서로나눔교육지구, 경기 및 전남은 혁신교육지구, 전북 혁신교육특구, 세종 및 충북·충남·경남은 강원도와 같은 행복교육지구라는 이름으로 전국 16개 시·도에서 185개지구가 운영하며 학교와 마을이 협력하여 지역의 교육력을 제고하는 역할을 하며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Q. 강원도교육청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가장 중요한 특징과 주요 성과는 무엇인가요?

A. 행복교육지구 사업은 강원도형 마을교육공동체 정책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원도형 마을교육공동체 정책은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학교 너머 학교인 온마을학교, 교육지원청과 군청이 주도하며 민관학 거버넌스로 운영되는 행복교육지구, 학교가 중심이 되는 삶과 연계한 학습과 성장을 위한 마을교육과정 및 마을선생님, 협동과 상생의 가치를 배우는 사회적경제 교육 및 학교협동조합의 사업을 추진하며 ‘신뢰와 협력으로 모두가 행복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교육생태계’를 만들어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통해 시군청과 교육지원청의 협업·협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되었고, 지역의 사회·문화·역사·지리·생태 등을 담은 교재 제작 및 교육과정 운영 등 지역교육과정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온마을학교 활동을 통해 학부모에서 마을교육활동가로 성장하며 지역의 중간지원플랫폼 역할을 고민하는 단체로 성장하는 등 지역의 학부모, 마을활동가, 시민단체에서 교육의 공적인 역할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것도 긍정적인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며 학교에 과도하게 집중되어있던 기능을 지역과 함께 나누고 있으며, 마을교육과정 운영으로 삶과 삶을 연계하는 맥락적인 배움으로 지역의 아이들이 마을의 다양한 자원과 관계를 맺고 성장 할 수 있는 배움의 공간을 확장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Q. 향후 강원도교육청의 계획은 어떠한가요?

A. 사회혁신의 방향이 정보기반 경제에서 창의기반 경제로 경제·산업 구조의 변화 됨에 따라 문화상상력 기반의 의미 창출과 연결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관계의 공간에서 흥미롭고 재미있는 경험의 제공으로 사용자의 개별성과 참여를 보장하고 다양한 욕구와 가치를 개방적으로 수용하며 통합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OECD 교육 2030 학습개념틀에서 제시하는 미래교육 방향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 책임감, 긴장과 딜레마 조정, 변혁적 역량으로 개인과 사회의 안녕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은 가치와 의미를 창출하는 역량 중심으로, 세상과의 관계 맺음을 통한 자기조직화로, 협치를 넘어 자치를 통한 일상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교육생태계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강원도교육청에서는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중심으로 마을교육공동체 정책을 내실화 하고자 하며, 그 핵심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 명 한 명을 위한 마을 교육

- 목적: 아이들의 당면한 총체적 삶의 요구를 온전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
- 방법: 아동·청소년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가는 교육



사회적 돌봄

- 목적: 학교와 마을을 넘나들고, 세대를 오고 가며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돌봄
- 방법: 지역사회 교육 기반 역어 교육 문화 플랫폼으로서의 지역사회 학습터 (공유 공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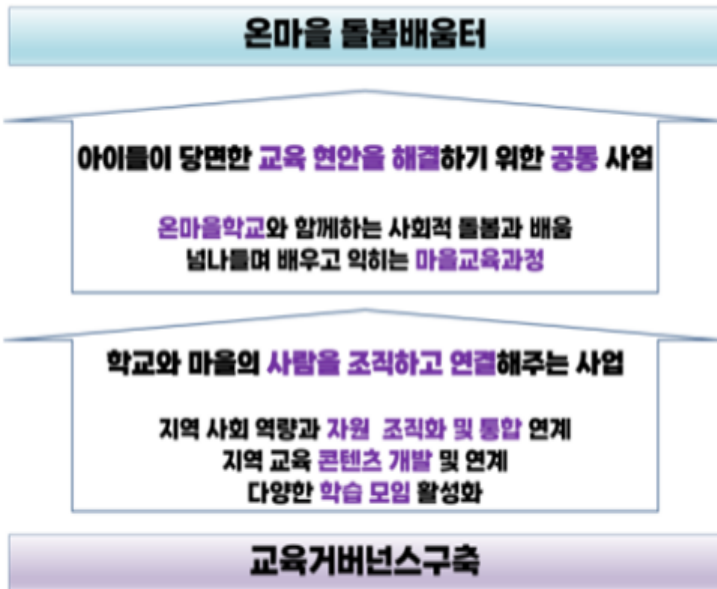
시민적 학습공동체

- 목적: 지역 주민 주체화를 위한 역량 개발과 지역 교육력 강화
- 방법: 마을교육아카데미, 동아리 활동, 학습 소모임 활성화 및 네트워크 지원



마을교육협의체

- 목적: 다층의 지역교육거버넌스 활성화
- 방법: 광역, 시·군, 읍·면·동, 학교 단위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운영



〈2022 행복교육지구 주요중점 추진과제〉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통하여 지역의 인적 역량과 물적 자산을 기반으로 돌봄·배움터 조성을 통해 넘나들며 배우는 미래지향적 교육혁신 추진,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행복교육지구 사업은 교육청과 지자체가 만나 학교와 마을을 연결하면서,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아동, 청소년, 어른들)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함께 협의하고, 실천하고, 책임지고, 성장하는 과정을 만들어가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거창하게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그리고 주민자치의 만남이라 말하지 않아도 이 과정에서 아이, 어른 모두 주체가 되어 공동체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가는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지역교육협력학과
DEPARTMENT OF REGIONAL EDUCATION COOPERATION

공평성(Equity)

남수경(강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헌법」 제3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교육제도로 구현하는 기본원리가 바로 공평성(equity)이라고 할 수 있다.

사전적 의미에서 공평성은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고른 성향”을 뜻하는 것으로, 평등주의 가치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민주주의 발달 역사와 함께 초기에는 자유사상에 바탕을 둔 개인주의가 팽배했었으나, 20세기 후반에 들어오면서 인간평등사상에 바탕을 둔 평등주의가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공공적 성격을 띤 교육 분야의 경우 특히 평등주의적 사고가 확산되면서 교육정책 전반에 영향을 주게 되었다. 그리하여 오늘날 공평성은 교육정책을 포함한 사회정책을 기획, 집행, 평가하는 과정 전반에서 다른 어떤 가치보다도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공평성의 개념은 동의어로 사용되는 형평성이라는 용어 외에도, 평등성, 균등성, 공정성 등의 유사한 개념들과 혼용되고 있다. 공평성과 형평성은 동일한 맥락에서 동일한 의미를 갖는 정책의 핵심 가치로 다루어지는데, 일반적으로 교육정책에서는 공평성이라는 용어가, 일반 사회정책에서는 형평성이라는 용어가 보다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교육적 맥락에서 공평성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사례로서, OECD에서 제시하는 교육제도의 기본원리로서 공평성과, 교육재정정책의 운영 원리로서 공평성을 중심으로 공평성의 의미와 유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 OECD에서 제시한 교육제도의 운영 기준으로서 공평성

접근의 공평성 (기회의 공평성)	특정 수준의 교육제도에 진학하는 데 기회가 동등하게 주어지고 있는가? 보다 세부적으로, 첫째, 교육 기회가 동등하게 주어지는 것과, 둘째,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되는 것을 포함함
학습환경의 공평성 (수단의 형평성)	개개인 모두가 동등한 학습 여건을 누리고 있는가? 즉, 교직원의 교육 수준, 수업에서 사용되는 자원과 접근방법의 양과 질 등의 측면에서 볼 때, 불리한 처지의 학생이나 집단이 유리한 조건을 갖춘 학생이나 집단과 동등한 학습 환경의 혜택을 받고 있는가?
산출물(결과)의 공평성	교육활동의 결과 학업성취도 또는 결과가 동일하게 나타나는가?
교육 결과 활용의 공평성	교육제도를 떠난 이후, 취업이나 사회생활에서 자신이 획득한 지식이나 기술을 사용하는 데 같은 기회를 가지는가?

■ 교육재정정책의 운영 원리로서 자원 배분의 공정성

수평적 공정성 (horizontal equity)	같은 것을 같게 대우하고 있는가? (예, 전국 모든 초등학생에 대해서는 1인당 교육비가 같은 수준으로 보장받도록 하는 것)
수직적 공정성 (vertical equity)	다른 것을 의미있게 다르게 대우하고 있는가? (예, 일반 초등학생 1인당 교육비와 특수학급 초등학생 1인당 교육비는 각각의 교육활동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다르게 지원하는 것)
재정적 중립성 (fiscal neutrality)	학생에게 주어지는 교육비용이나 교육 프로그램이 부모나 지역의 부 또는 재정 능력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정책을 운영하고 있는가? (예, 재산세가 높은 부유한 지역 소재 학교의 교육시설이나 교원의 수준이 더욱 높거나 학생 1인당 교육비 수준이 더 높은 등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것)
재정적 적절성 (fiscal adequacy)	학생 1인당 교육비 수준이 적정 수준의 교육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정도로 지원금액이 충분한가? (예, 수평적 공정성(전국의 초등학생 1인당 교육비가 동일 수준 유지)과 수직적 공정성(학교급별로 학생당 교육비에 차이 유지)이 의미있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충분한 수준으로 지원하는 것)

■ 공정성(equity), 효율성(efficiency), 그리고 수월성(excellence)의 관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정성의 개념은 모든 사람들이 인종, 성, 재력, 재능 등의 차이에 관계없이 사회자원을 균등하게 배분하는 평등성의 원리와는 차이가 있다. 특히 교육적 능력 이외 배경 요인의 영향으로 인해 교육기회에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교육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는 제 1원리가 바로 공정성이다. 그런데 관건은 다른 것을 얼마나 의미있게 다르게 대우할 것인가를 교육제도에서 실현하는 데 있다. 평등의 원칙에 의미있는 차등의 원칙을 적용하는 문제가 바로 공정성에 내재해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자유 선택과 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적 활동에서 공적인 개입을 논의할 때, 효율성과 공정성은 서로 상충되는 제도의 운영 원리로 이해되기도 한다. 여기서 효율성이란 최대 이익(효과)을 유발하는 방향으로 희소자원을 투입하는 것(내적 효율성)으로 해석되고, 공정성이란 사회적 약자층에 대한 우선 지원이나 소득 분배에 관심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두 가지 원리가 상충적이라고 말하는 근간에는 효율성을 교육제도에 적용할 때 ‘수월성(excellence)’에 대한 우선 투자’로 이해하는 시각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적 효율성의 차원에서 볼 때 교육제도에서 공정성을 실현하는 것은 사회적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즉 효율성을 높이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정부가 재능은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국가장학금을 주는 것, 즉 고등교육제도에 대한 공정성 원리를 투입하는 것은, 가난하지만 전도유망한 학생이 고등교육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적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성과 효율성, 수월성의 관계 부분은 수월성, 효율성의 원리를 알쓸교원에서 차례로 다루면서 추후 더욱 깊이 논의해 보기로 하자.

우리 마을은요....

마을 교육활동가를 만나다!

01

안승문

전 서울시 교육자문관
현 울산교육연수원장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클릭!

02

이형진

현 부산시교육청 장학사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클릭!





자세한 내용은 QR 참고

#7월행사 #지역과협력하는 #교육연구소

2021년 국립대학육성사업 SuperVision for Gangwon 성과평가회

일시 2021년 7월 3일(토) 10시-19시

장소 강원도 고성 르네블루by워커힐

내용 행복교육지구 사업 운영 소개 및 5개 행복교육지구 (영월, 원주, 인제, 정선, 철원) 컨설팅 현황 보고



강원도 중학생의
학력향상과
진학 및 진로에
대한 동기 부여

강원도 내 현장
교사와 사범대 학생
간 멘토-멘티 활동을
통한 사범대생의 원격
교육 전문성 강화

방학기간
주기적
학습지도로
학업 태도 개선

강원대학교 사범대
학생에게 지역사회
교육봉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이해 및
국립대 공공성 확보

2021

Teach for Gangwon

“강원대학교 사범대학과 함께 하는
강원도 중학생 기초학력 든든 프로그램”



지도 교과목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역사
총 6개 과목



참여대상

기초학력 증진, 학업의욕
고취, 학습태도의 형성 등이
필요한 강원도 지역의 중학생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우선 선발)



멘토링 내용과 방법

교과목별 신청 상황에 따라
멘토와 멘티 1:1 또는 1:3 수준
소수 정예 맞춤형 원격지도

(1인 최대 2과목 선택)



참여 특전

교과에 대한 지도는
“전액 무료”로 진행

1차 여름 방학 : 2021년 7월 21일 ~ 8월 8일 주 3회×2주 (총 6시간)

2차 겨울 방학 : 2022년 1월~2월 주 2회×6주 (총 12시간)

신청 방법

학교별로 중학생 수요 조사를 기반으로 별도 양식 (향후
신청기간 및 양식은 공문으로 송부)으로 담당교사가 신청
신청 인원이 많을 경우 학교의 소재지, 학교별 참가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대학에서 선정함
여름방학에 선정되지 못한 학생은 겨울방학에 우선적으로
선발할 수 있음

프로그램 운영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ZOOM)

* 코로나19나 강원대학교의
사정에 따라 구체적인 진행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